

# 김포서는 'OK', 제주선 'NO'? “한국공항공 행정, 주먹구구식”

## 국내선 보안검색 논란

김포공항서 기내반입 캠핑용 팩  
제주공항 측 “규정상 반입 불가”  
A씨 “이중잣대 행정에 승객 혼선”



A씨가 제주공항 보안검색과정에서 걸린 텐트용 알루미늄 팩.

국토교통부 산하인 한국공항공사(사장 윤형중)가 국내선 보안검색을 하면서 이중잣대를 적용해 논란이다.

김포공항에선 허용하던 기내 수화물을 제주공항에선 반입을 막아 한 승객이 한국공항공사 직원과 한창 실랑이를 벌이면서다.

주먹구구식 보안검색으로 엇박자가 나면서 한국공항공사(KAC)가 빈축을 사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공항공사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3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23일 제보자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제주공항에서 20시50분에 출발, 김포공항으로 가는 제주항공을 탑승하기 위해 수속을 밟았다. 그런데 보안검색 과정에서 A씨의 배낭속에 있는 물건 하나가 엑스레이(X-ray)에 걸렸다.

A씨는 보안요원의 지시에 따라 검색대에서 배낭을 열었다. 엑스레이가 감지한 것은 다름아닌 길이가 10cm 정도되는 텐트용 알루미늄 팩 7개였다.

한국공항공사 보안요원 정승호씨는 “기내로 반입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어서 (화물칸)수화물로 다시 붙여야한

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틀전 오전 김포공항에서 출발하기 전 거쳤던 검색 과정에선 별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같은 배낭을 수화물이 아닌 기내로 반입해 제주로 내려올 수 있었다. 제주공항 검색과정에서 걸렸던 배낭속 텐트용 팩이 김포공항에선 무사 통과했다.

A씨는 “김포공항에선 통과한 내용이 제주공항에선 걸리는게 전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항변했다.

보안요원 정씨는 A씨에게 “그럼 제주에 내려올 때 댕던 항공편을 알려주면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정씨에게 “항공편이 무슨 상관이나. 무엇을 확인해보겠다는 말이냐. 항공편과 상관없이 타기전 거치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이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 두 공항 모두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데 검색대 통과후 타는 항공편과

는 무관한거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타고 내려왔던)항공편을 알려주면 (한시간 정도 남은)출발시간 전에 확인해보겠다는 결과를 말해줄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랬더니 정씨는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A씨와 보안요원이 줄다리기를 하는 와중에 또다른 직원이 달려와 보안규정이 담긴 서류를 내밀었다.

내민 서류에는 총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텐트뚫은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다는 내용과 그림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의아해하며 다시 직원에게 “그럼 규정대로 하지 않은 김포공항이 잘못된거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서울(김포공항)에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면 기내로 반입하지 않고 수화물로 갖고 오지 않았겠느냐”고 항변했다.

A씨가 추가로 따지자 또다른 보안요원인 부현진씨는 “규정상 기내로 반입이 안되니 빠르게 수화물로 붙일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그럴 필요 없다”며 걸린 텐트용 팩을 검색요원에서 주고 예정된 항공편을 이용해 서울로 올라왔다.

A씨는 “한창 실랑이를 하고 나서야 고객의 편의를 봐주는 척 하는 공사의 행태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규정이 버젓이 있는데도 다른 잣대를 적용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는 공공기관의 주먹구구식 행정에 화가 난다”고 꼬집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7번째)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레 띠엔 찌우(Le Tien Chau) 베트남 하이퐁시 당서기(왼쪽 8번째)를 만나 양자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 후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 베트남 진출 중소기업 지원·협력방안 논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이퐁시 당서기와 양자면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베트남 하이퐁시 당서기와 현지 진출 한국 기업 및 신규 진출 희망 스타트업에 대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오 장관이 레 띠엔 찌우 하이퐁시 당서기의 요청으로 양자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베트남 5대 특별시 중 하나인 하이퐁시는 베트남 최대 항구도시이자 산업도시로서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이 대규

모로 진출한 한·베 경제협력의 요충지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하이퐁시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의 활동 외에도 하이퐁시가 지난 주 주최한 '테크페스트 하이퐁 2024'에 청주시 혁신우수기업과 함께 참석한 충북테크노파크의 협업 활동 등을 공유했다.

베트남의 경제발전과 양국 간 중소기업의 교류 확대를 위해 중기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수출 플랫폼 전수 OD A 사업' 관련 하이퐁시와의 협력 방안 등도 논의했다.

오 장관은 “베트남은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진출이 2번째로 많은 국가로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국가”라며 “이번 면담을 계기로 하이퐁시와 중기부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됨으로써 검업과 테크페스트 행사간 연계, 동행축제 협력 등 중소·벤처기업의 교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레 띠엔 찌우 당서기는 “하이퐁시는 우수한 물류 및 교통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해외투자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한국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지역”이라며 “앞으로 한국기업이 더욱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중기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빵 대신 밥”... ‘햇반 백미’ 북미서 인기

CJ제일제당, 작년 수출액 1600억  
북미 소비자, 토핑·사이드디시 활용  
‘건강한 탄수화물’ 먹기위해 구매



CJ제일제당이 북미에 수출하고 있는 ‘bibigo Sticky Rice’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의 ‘햇반 백미’가 북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북미에 수출한 ‘햇반 백미’ 매출이 전년 보다 20.6% 상승한 약 1600억원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년전인 2021년 보다 2배 규모로 성장한 수치다.

CJ제일제당은 북미에서 ‘햇반 백미’를 ‘bibigo Sticky Rice(찰진 밥)’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상온 가공밥으로 백미밥과 잡곡밥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백미밥은 상온 가공밥 수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주력하는 제품이다.

가공밥은 CJ제일제당의 7대 글로벌 전략제품(GSP) 중 하나로, 핵심 권역인 북미에서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 채널에 입점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CJ제일제당이 북미 즉석밥 취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북미 소비자들은 ▲라이스볼(rice bowl)을 먹을 때 흰 밥을 토핑으로 올려서 또는 섞어서 먹기

스럽게 늘어났다.

또한 ‘웰니스 트렌드’로 흰쌀밥이 ‘상대적으로 건강한 탄수화물’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북미에서 주로 먹는 탄수화물은 글루텐이 많이 함유된 빵류 또는 상대적으로 짠 맛이 강한 볶음밥류가 주를 이루고 있어 건강하게 탄수화물을 섭취하고자 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흰쌀밥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실제로 CJ제일제당은 현지 흰쌀밥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34.6%가 ‘쌀이 건강한 선택지이기 때문에 구매한다’고 답했다.

업계에서는 북미 가공밥 시장이 최근 3년간 평균 13% 성장해 현재는 약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석밥 판매 기업 중 한국식 쌀밥을 판매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CJ제일제당이 유일하며, CJ제일제당의 2023년 북미 가공밥 전체 매출은 2021년 대비 1.8배 규모로 성장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향후 현지에 적합한 다양한 제품들로 북미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역대 최고치

중기부, 작년 127.3조 집계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12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3일 국무회의에서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118조40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제도를 시행한 2006년 이후 최고액이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관료지원에 관한 법률(관료지원법) 제5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은 총 구매액의 절반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채워야 한다. 지난해 대상 기관은 총 854곳이었다.

중기부가 선정한 ‘중소기업제품 구매 우수기관’으로는 대전시교육청, 교육부, 경기도 고양특례시 등 20곳이 뽑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85%, 구매액 3000억원 이상을 별도 기준으로 우수기관을 추렸다.

특히 대전시교육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2022년 대비 약 1500억원(42%), 교육부는 약 2900억원(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기관들이 중기부에 제출한 올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액은 총 119조1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는 기관 전체 구매액의 약 75% 수준이다. /김승호 기자

## 유진기업, 레미콘 안전환경 정착 힘쓴다

‘위험성평가 따라잡기’ 매뉴얼 발간

유진그룹의 모기업 유진기업이 레미콘 업계의 안전한 근로환경 정착에 힘쓰고 있다.

유진기업은 레미콘업계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위험성평가 따라잡기’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레미콘 업계 내 안전문화 발전을 위해 유진기업의 노하우를 담아 만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과 ‘안

전보건점검 가이드’에 이어 세 번째로 발행한 안전보건 가이드북이다.

이번에 발행한 ‘위험성평가 따라잡기’는 레미콘 선도기업인 유진기업이 10여년간 24개소의 레미콘사업장에서 실시해온 위험성평가 실행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하고 있다. ▲위험성평가의 개요 ▲위험성평가서 작성방법 ▲위험성평가 작성 사례 등이 이미지 및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김승호 기자